

도내 취업자 '부쩍'..자영업은 감소 지속

지난달 취업자 전년비 1만7천명↑...30대 제외 전 연령대 증가 비임금근로자·농림어업은 줄어...2분기 청년실업률 2.2%p 상승

경기 회복과 기저효과로 제주지역 취업자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제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농림어업 취업자와 자영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고용 시장의 불안감이 재차 커지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소장 정규승)가 14일 발표한 '2021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취업자는 3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7000명(4.7%) 증가했다.

이는 전월 증가폭 1만4000명보다 확대된 수치다. 도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1만명을 웃돌고 있다. 고용률은 68.1%로 1년 전과 비교해 2.5%

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증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기 회복, 지난해 6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의 기저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달 초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다음 달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30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1000명 줄었다.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3000명(-2.2%) 감소한 13만6000명이다. 가운데 자영업자는 경기 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2000명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이어갔다.

임금근로자는 2만1000명(8.9%) 증가한 2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용근로자는 2만2000명(14.1%)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000명(-2.8%), 임시근로자는 0.8%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8000명(5.8%), 광공업 4000명(34.9%),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000명(11.6%) 각각 늘었다. 하지만 농림어업 취업자는 4000명(-5.4%) 줄어들며 올 들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지난달 도내 실업자는 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17.6%) 감소했다. 실업률은 0.8%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실업률은 3.3%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1%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청년실업률(15~29세)은 9.2%로 2.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제주경제 회복세 유지...불안감 상존

소비심리·소매판매 등 상승세 지속...코로나 재확산 '변수' 우려

제주경제가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변성식)가 14일 발표한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7.9로 전월 대비 4.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8년 6월(108.3)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7.6% 증가해 상승폭이 전월(4.3%)보다 확대됐다.

제주경제 실물지표가 개선된 것은 지난달 112만7000명을 비롯해 제주 방문 관광객이 3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5월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월보다 3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부문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5월 공공부문 발주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건축허가면적은 26.7% 감소했고 건축착공면적은 8.9% 증가했다.

5월 농산물 출하액은 전년 동월 대비 0.2%, 수산물 출하량은 멸치를 중심으로 37.7% 각각 줄어들었다. 제조업 생산은 음료를 중심으로 10.4%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은 농축수산물과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은 기계류와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각각 101.6%, 66.1% 증가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최근 제주경제는 관광 수요 증가에 힘입어 소비심리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고용 상황도 개선되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버튼 하나로 병해충 잡는다" 노지감굴 무인 방제 '효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봉철)는 무더위 속 버튼 하나로 감굴 병해충을 잡는 '노지감굴 무인 약제 방제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인 방제를 통해 매년 손으로 농약을 살포하던 농가의 수고를 덜고 농약 노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노지감굴 재배 농가 2곳을 대상으로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입해 원격제어 동력분무기(스피드 스프레이어)를 보급했다.

스피드 스프레이어는 무선 원격조종을 이용, 5000ℓ의 약액탱크가 내장된 분무기 자체동력을 작동시켜 효과적으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방제기다.

사업 추진 결과 약제 유실량 없이 3300㎡(1000평) 기준 2시간 이상 소요되던 방제작업이 1시간으로, 리모컨 조작을 통해 방제인력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각각 줄일 수 있었다. 또 병해충 방제 외에 원활한 감굴 생리를 위한 영양제 또는 액비를 간단하게 살포할 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은행권 가계대출 다시 증가 SK이테크놀로지 공모 관련 대출이 상환되면서 일시적으로 줄었던 가계대출이 6월에 6조원 이상 다시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30조4000억원으로 5월 말보다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모습. (연합뉴스)

6차산업 사업체 7곳 신규 인증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는 올해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신규인증 7곳, 갱신 9곳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총 122곳의 인증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6차산업 인증은 대상주체와 사업장임지, 주원료형태, 사업성과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서면·현장실사 및 적격심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증을 받게 된다.

6차산업 인증사업체는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원포인트 자문, 온라인 체원단, 협업화 사업, 택배비·홍보비·방역비·품질검사비 지원, 현장 코칭,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차 신규·갱신 인증 공고는 지난달 시작됐으며 신규 인증 신청은 다음 달 13일 마감된다.

"마늘 기계재배 시 인건비·비상품 비율 감소"

실증 결과 수확비용 80% 절감 효과

마늘 재배 기계화 시 인건비와 비상품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봉철, 이하 센터)는 마늘 재배 기계화 매뉴얼 개발 실증 1년차를 마무리하고 성과와 과제를 14일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마늘은 파종과 수확 작업 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노동집약적 작목으로 10a당 생산비 223만9000원 중 인건비는 90만4000원(40.4%)에 달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 등으로 인력난을 겪으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계화율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서부지역 마늘 주산지 16농가 4.6ha를 대상으로 '마늘재배 기계화 매뉴얼 개발 실증'을 운영했다.

분석 결과 ▲기계파종 시 인력파종 대비 인건비 83.5% 절감 ▲기계파종 상품률(직경 5.5cm 이상) 79.5%로 손파종 대비 160% 이상 상승 ▲기계수확 시 인력수확 대비 비용 79.8% 절감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늘 건조 시 관행적인 자연건조 대비 송풍·제습건조에서 건조 상태가 양호하고, 불량품 비율이 낮았다고 나타났다.

이에 센터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마늘 재배 생력화 매뉴얼과 마늘 품질 향상 매뉴얼 등 2가지 매뉴얼을 정립하고 농가 보급에 나선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JTP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연장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JTP)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 30% 감면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JTP에는 제주벤처마루 16개 기업과 바이오융합센터 36개 기업, 디지털융합센터 7개 기업, 융합해수센터 14개 기업 등 7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JTP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임대료 30% 감면을 적용했다.

현재까지 1년 4개월간 94개 입주기업이 총 1억7631만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았다. 6개월간 임대료 30% 감면 연장이 실시되면 추가 감면금액은 약 7200만원으로 전망된다.

태성길 JTP 원장은 "입주기업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가진 제주 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아 나갔겠다"고 말했다.

대표 김영철

(사)한국 귀금속 판매업 중앙회 초대 제주지회장(2005-2006)
국제로타리3662지구 관덕로타리클럽 회장(2010-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도협회 한라경 사투(2013-2014)

귀금속 전문점

영/흥/보/석

행복한 날을 위한 준비 영흥보석에서 시작하세요!

금 · 은 · 보석 · 시계 · 예물 전문

제주시 용화로 65(용담 2동 용문로터리)

전화 064.711.6228, 010-2690.6228

맛을 담는다

HANARO 하나로

HANARO CATERING

출장뷔페 / 도시락

출장뷔페 / 각종 행사음식 전문업체

문의전화 010.3693.0233 / 064.726.0100

제주시 사라봉길1길45

맛과 정성, 엄마의 마음까지 담았습니다.